

간호학 지식 분류에 근거한 정신간호학회지 논문 분석: 최근 5년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지혜¹ · 유석분²

한양대학교 간호학부¹, 송곡대학교 간호과²

An Analysis of Research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JKPMHN) based on Knowledge Development Classifications of Nursing: Publication Articles from 2010 to 2014

Kim, Ji-Hye¹ · Yoo, Seog-Bun²

¹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²Department of Nursing, Songgok Collage, Chuncheon,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knowledge development as presented in articles that were published from 2010 to 2014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JKPMHN) and to identify the nature of research trends. **Methods:**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knowledge development classifications were used to analyze 189 articles. **Results:** Prominent research trends in JKPMHN were empirical knowledge in the pattern of knowing in nursing, situation-relating theory on levels of theories in nursing, inferential focus on cognitive needs for nursing epistemology, and client domain for nursing. **Conclusion:** The major research trends in JKPMHN were empirical and inferential knowledge. Nursing research that balances knowledge development and domains are needed.

Key Words: Knowledge, Nursing research, Analysis, Psychiatric nurs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간호학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건강인, 정신질환자와 그들 가족의 정신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간호학의 분과학문이다. 정신간호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정신간호학회지)”는 독자적 학문영역으로서 정신간호학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자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론, 교육 및 실무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 논문을 게재하여 연구자, 실무자 및 교육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수행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다. 1992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14년까지 총 85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2008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선정되어 학술지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어: 지식체, 간호 연구, 분석, 정신 간호

Corresponding author: Yoo, Seog-Bun

Department of Nursing, Songgok Collage, 34 Songgokdaehak-gil, Namsan-myun, Chuncheon 24465, Korea.
Tel: +82-33-260-3634, Fax: +82-33-261-4599, E-mail: mbuddy@songgok.ac.kr

Received: Jan 16, 2016 | Revised: Mar 8, 2016 | Accepted: Mar 13,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간호학은 인간을 총체적이며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존재라는 전제하에 인간을 대상으로 실무와 기술을 수행하는 실천학문으로[1,2] 연구를 통한 지식체 확립과 간호 실무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3]. 또한 해당 사회의 요구에 따라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개발을 해 나가는 것은 물론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창출하여야 한다.

간호 학문의 발전과 지식체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체 개발뿐만 아니라 무엇이 학문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무엇이 학문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자각은 학문으로서의 간호학 발전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고 학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4]. 다시 말해 간호학의 본질과 고유성에 대한 설명은 간호 지식체의 특성과 관련된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지식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간호학의 본질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Carper의 지식 형태에 따른 분류[5]와 Dickoff와 James의 이론 수준에 따른 분류[6] 체계가 이용되었다. Carper는 간호에서 사용되는 지식을 경험적 지식(empirics knowledge), 미학적 지식(aesthetic knowledge),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 윤리적 지식(ethics knowledge) 4가지로 분류[5]하여 간호 학문의 복잡성을 보여 주었다. Dickoff와 James는 이론을 어떤 목적을 위해 개발된 개념적 틀이라고 정의하고, 이론의 수준을 지식의 발전 단계와 목적에 따라 요인분리 이론(factor-isolating theory), 요인관계 이론(factor-relating theory), 상황관계이론(situation-relating theory), 상황생성이론(situation-producing theory)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6].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Kim의 지식 영역(domain)에 의한 분류[7]와 인식론적 초점에 따른 분류[8] 체계를 이용하여 간호 지식체를 분석한 바 있다[9,10]. Kim은 대상자 영역, 대상자-간호사 영역, 간호실무 영역, 환경 영역에서 간호학 지식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음을 제시하였다[7]. 또한 Kim은 지식산출을 위한 네 가지 인식론적 초점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윤리적/미학적 지식을 생성하는 소망적 초점(desiderative focus), 일반화된 지식을 생성하는 추론적 초점(inferential focus), 상황의 해석학적 지식을 생성하는 대상초점(referential focus) 그리고 비판적 해석학적 지식을 생성하는 변화하는 힘 초점(trans-formative focus)이다[8]. 위와 같은 지식 개발 분류의 틀은 간호학 논문의 간호학적 특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틀로 인정되고 있다[9,10].

국내 간호학회에서는 간호학의 지식 확장을 목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축적된 지식체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국내 간호계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학회지(현

한국간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로는 게재 논문의 주요어, 간호학 지식분류 유형,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실험연구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한 연구가 있다[9,11-14]. 이와 같이 게재된 논문들의 분석은 지식체 발달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의 하나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간호 연구 및 지식체 발달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학술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13,15].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로는 창간호부터 2006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16], 창간호부터 2006년까지 게재된 간호중재논문 분석[17],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을 분석한 연구[18]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연구유형, 연구대상자, 연구방법론 등을 포함한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정신간호학 지식체의 고유한 특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간호학의 학문적 틀 안에서 정신간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신간호학 지식체의 특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지식분류 유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정신간호학 지식체의 특성과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간호학 학문의 발전을 위한 지식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간호학의 지식 분류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신간호학 지식체의 특성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지식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유형, 연구의 유형,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윤리 고려점을 분석한다.
-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간호학의 지식 분류 유형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지

식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학 지식 분류 기준[9]을 활용하여 분석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89편이다. 분석 대상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정신간호학회 학회지 논문검색 사이트(<http://www.jkpmhn.org>)에 접속하여 해당 기간에 게재된 논문 전수를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1) 게재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

게재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간호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19]에서 사용된 분석 틀을 토대로 논문의 유형, 연구 유형,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의 윤리성을 분석하였다. 게재논문의 윤리적 측면은 구두 동의, 서면 동의, 조사기관장 승인,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중복 수행 시 보다 높은 수준(IRB, 조사기관장 승인, 서면 동의, 구두동의 순)으로 분류하였다.

2) 게재 논문의 지식 분류

게재 논문의 지식 분류는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연구[9]를 토대로 간호 지식의 형태에 따른 분류, 이론 수준에 따른 분류, 인식론적 초점에 따른 분류 그리고 지식의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1) 간호 지식의 형태에 따른 지식 분류

Carper의 간호 지식의 네 가지 형태[5]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였다. 통계적 자료에 근거하여 간호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 설명, 예측하는 형태와 실험연구는 경험적 지식으로 분류하였고, 연구의 주제가 간호사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간호대상자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개인적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간호사와 간호대상자 간의 공감, 치료적 의사소통, 치료적 관계 등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는 미학적 지식으로 분류하였고, 인권, 사전의료의향, 도덕적 고뇌 등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윤리적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2) 이론 수준에 따른 지식 분류

Dickoff와 James의 이론의 수준[6]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였다. 간호현상을 기술하고 분류하여 명명하는 수준의 탐색적

서술 연구나 현상학, 주제 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는 요인분리 이론으로 분류하였고,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를 요인관계이론으로 분류하였다.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예측을 위해 경로를 분석하거나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는 상황관계이론으로 분류하였고 중재를 개발하고, 실험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가장 상위의 상황생성이론으로 분류하였다.

(3) 인식론적 초점에 따른 지식 분류

Kim의 네 가지 인식론적 초점[8]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였다. 이상적인 간호 수행을 위한 간호의 윤리적, 미적인 측면과 간호실무 지침의 개발 및 평가에 초점을 둔 연구를 소망적 초점으로 분류하였고 실험연구, 관계연구, 예측모형 연구 유형은 추론적 초점으로 분류하였다. 인간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등의 질적 연구는 대상 초점으로 분류하였고, 해석학적 분석과 담론 분석, 해체, 비판적 분석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변화하는 힘 초점으로 분류하였다.

(4) 지식개발 영역에 따른 분류

Kim의 지식개발 영역[7]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였다. 영역 중 환경 영역을 제외한 세 개의 영역이 주요 지식개발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어[9], 선행연구[9,10]와 동일하게 세 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는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현상, 질병 경험 및 대상자의 건강 행위의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를 대상자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와 간호사 간의 치료적 관계, 의사소통, 감정이입,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간호사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실무에 관련된 지침 및 중재, 기초자료 생성에 대한 연구는 간호실무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분석

선행연구[9,19]에서 사용된 분석틀을 토대로 2014년에 게재된 논문 32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각각 1차 예비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합의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후 2013년에 게재된 논문 10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차 예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간 일치도가 95%로 나타나 본 분석을 시행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자 2인이 각각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작업을 하였다. 연구자 간 분석결과 일치도는 평균 96%

로 나타났으며 연구자 간의 분석결과가 상이한 부분은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게재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 총 20권이 발간되었으며 논문의 수는 189편이었다. 논문 유형은 연구비 수혜 논문이 41.3%(78편), 일반 논문이 39.7%(75편)이었다. 연구 유형은 양적 연구가 78.8%(149편)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 연구는 12.7%(24편), 메타분석, 동향분석과 같은 이차분석 연구가 3.7%(7편), 개념분석, 측정도구 개발을 포함한 기타 연구가 3.7%(7편), 혼합연구가 1.1%(2편)이었다. 연구대상자는 의학적인 질병이 없는 건강인이 48.1%(91편), 환자군이 24.9%(47편), 간호사, 간호대학생, 의사 등의 의료인이 18.5%(35편),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8%(9편)이었다. 건강인을 생애주기별로 분류하면 성인이 50편, 아동 및 청소년이 31편, 노인이 8편순이었으며 환자군에서는 성인이 38편, 아동 및 청소년이 3편, 노인이 3편이었다. 연구 윤리 준수 정도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수행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받은 논문이 47.6%(90편), IRB의 연구 승인을 받은 논문이 33.9%(64편)이었으며, 연구의 윤리적 고려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논문은 1.6%(3편)이었다(Table 1).

2. Carper의 간호학 지식 형태에 따른 분석

경험적 지식 형태의 논문이 140편(74.1%), 간호사의 개인적 지식 형태의 논문이 42편(22.2%)으로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윤리적 지식 형태의 논문이 4편(2.1%), 미학적 지식 형태의 논문이 3편(1.6%)으로 소수였다(Table 2).

3. Dickoff와 James의 이론 수준에 따른 분석

상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수준의 상황관계이론이 81편(42.9%)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이론으로 제시된 상황생성이론이 47편(24.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요인분리이론이 39편(20.6%), 요인관계이론이 22편(11.6%)이었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ublished in JKPMHN (N=18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anuscript type	Funded research	78 (41.3)
	Self-funded research	75 (39.7)
	Thesis or dissertation	36 (19.0)
Research type	Quantitative research	149 (78.8)
	Qualitative research	24 (12.7)
	Mixed research	2 (1.1)
	Studies based on secondary data	7 (3.7)
	Others	7 (3.7)
Research participants	Well participants	
	Children, adolescents	31 (16.4)
	Adults	50 (26.5)
	Elderly	8 (4.2)
	Overall aged people	2 (1.1)
	Subtotal	91 (48.1)
	Ill participants	
	Children, adolescents	3 (1.6)
	Adults	38 (20.1)
	Elderly	3 (1.6)
	Overall aged people	3 (1.6)
	Subtotal	47 (24.9)
	Healthcare provider	
	Nurses	17 (9.0)
	Nursing students	15 (7.9)
	Others	3 (1.6)
	Subtotal	35 (18.5)
	Family	9 (4.8)
	Documents	6 (3.2)
Others	1 (0.5)	
Ethical consider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64 (33.9)
	Written consent	90 (47.6)
	Verbal consent	24 (12.7)
	Not reported	3 (1.6)
	Review exemption object	8 (4.2)

4. Kim의 인식론적 초점에 따른 분석

간호 지식의 인식론적 초점에 따라 논문을 분류했을 때 추론적 초점이 152편(80.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대상 초점(26편, 13.8%), 소망적 초점(11편, 5.8%) 순이었으며 변화하는 힘 초점의 논문은 없었다(Table 4).

5. Kim의 지식개발 영역에 따른 분석

지식개발 영역에 따라 논문을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은 대상자영역으로 118편(62.4%)이었다. 그 다

음이 실무영역으로 70편(37.0%)이었고, 대상자-간호사 영역은 1편(0.5%)이었다(Table 5).

Table 2. Classification based on Four Patterns of Knowing in Nursing (N=189)

Four patterns of knowing in nursing	n (%)
Empirics knowledge	140 (74.1)
Personal knowledge	42 (22.2)
Ethics knowledge	4 (2.1)
Aesthetic knowledge	3 (1.6)

Table 3. Classification based on Four Levels of Theories in Nursing (N=189)

Four levels of theories in nursing	n (%)
Factor-isolating theory	39 (20.6)
Factor-relating theory	22 (11.6)
Situation-relating theory	81 (42.9)
Situation-producing theory	47 (24.9)

Table 4. Classification based on Four Cognitive Needs for Nursing Epistemology (N=189)

Epistemic Focus	n (%)
Inferential focus	152 (80.4)
Referential focus	26 (13.8)
Desiderative focus	11 (5.8)
Trans-formative focus	0 (0.0)

Table 5. Classification Based on Three Domains for Nursing (N=189)

Domains	n (%)
Client domain	118 (62.4)
Practice domain	70 (37.0)
Client-nurse domain	1 (0.5)

논 의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간호학에서의 지식 분류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간호학회지는 총 20편이 발간되었으며 논문의 수는 189편으로 연간 평균 38편이 게재되었다. 이는 정신간호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06년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16]에서 제시된 평균 논문 수 32편에 비하면 약 20% 증

가한 수치로 이는 정신간호 연구의 양적인 성장과 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구비 수혜율은 전체 논문의 41.3%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24.7%가 연구비를 수혜 받았다는 결과[16]에 비하여 증가한 수치이다. 국가기관이나 대학교 및 재단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과제는 학문적인 가치와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본 학회지의 연구비 수혜율 증가는 정신간호학 연구자의 학문적 역량 성장과 학회지의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가 78.8%, 질적 연구가 12.7%로 대부분 양적 연구였다. 질적 연구의 비율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의 동향과 비교하면 낮다. 대한간호학회지 및 8개의 회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간호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20]의 결과(14.4%)보다 낮다. 국외에서 출간되는 10개의 주요 간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분석한 연구[21]에서는 양적 연구 대 질적 연구가 51대 37%로 보고되었고 4개의 간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22]에서는 질적 연구가 21%로 나타났다. 복잡한 인간의 정신세계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현상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정신간호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는 질적 연구는 정신간호학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좀 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1편(5.8%)으로 대한간호학회지의 22.5%[15]와 비교하여 매우 낮다. 국외 연구의 경우 1985년부터 2010년까지 4개의 간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 결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23%를 차지하였다[22].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간호학회지 및 8개의 회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주요어 1순위가 '노인'이라는 점[20]은 간호학 모든 분야에서 관심있게 다루지는 연구대상임을 시사한다. 최근 노인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사회 및 건강 전문인의 노인에 대한 관심 증가가 필요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정신보건 분야를 선도해야 하는 정신간호학의 정체성을 살려 정신 건강 측면에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의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간호학 지식 분류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경험적 지식 형태가 140편(74.1%), 추론적 초점이 152편(80.4%), 상황관계이론이 81편(42.9%), 대상자영역이 118편(62.4%)으로 간호학 지식산출 양상과 영역이 편중되어 있었다. 이는 2006년에 대한간호학회지와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 논문을 분석한 결과[10]와 유사하다. 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추론적 초점에 기반을 둔 경

험적, 실증적 자료에 의한 과학화를 추구하고, 요인에 대한 탐구 또는 요인과 요인간의 관계, 상황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수량화된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수준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신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은 어떻게 상황을 조성하고 변화시킬지에 대한 증재를 안내 해줄 수 있는 수준의 실증적 연구를 의미하는 상황생성이론이 24.9%(47편)로 앞의 두 학회지(대한간호학회지: 8%, 기본간호학회지: 6%)[10]와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최근 기본간호학회지에서 실험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19]과 유사하게 정신간호학회지에서도 실험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대상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근거기반간호가 강조되는 오늘날에 적합한 간호 지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개발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 정신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은 주로 대상자 영역(62.4%)에 중점을 두는 연구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2006년에 대한간호학회지와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간호실무 상황 지도, 중재, 이상적인 간호서비스를 위한 간호수행 등 실무 영역(대한간호학회지: 68%, 기본간호학회지: 77%)에 중점을 두는 연구 성향[10]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정신간호학문에서는 일반인, 환자군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 경험 및 건강상태, 건강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전인적인 간호 실천에 선행되어야 하는 대상자와 건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들은 간호 대상자, 간호 실무의 지식요소를 다루고 있지만 실무에서의 의사결정이나 윤리적 측면,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에서 형성되는 미학적 측면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신간호 분야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인간관계가 중요할 뿐 아니라, 간호사가 자신을 치료적으로 활용하여 변화 촉진자로서의 전문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23]. 따라서 이러한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상자-간호사 영역의 연구가 활발해져야 하며, 정신간호대상자인 정신질환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및 정신보건 종사자들의 인권의식[24] 등을 다루는 연구도 많아져야 할 것이다. 학문의 독자성은 고유한 탐구영역과 그 대상을 바르게 규명해낼 수 있는 방법적 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성립된다. 간호학의 다양한 특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논문의 산출이 많을수록 간호학은 그 학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간호학 및 정신간호학 논문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문헌의 특성을

분류하였으므로 수량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국외 정신간호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파악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정신간호학 연구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정신간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정신간호학 지식체의 특징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영향력 지수가 높은 국외 정신간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회지별로 분석항목이 다양하고 제한된 기간의 연구동향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 간호 연구 동향 전체를 파악하고 학회지별 비교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일한 평가항목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간호학회지 창간호부터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과거와 비교하기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지식분류 유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현재 정신간호학의 전반적인 연구동향과 지식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간호학 학문의 발전을 위한 지식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5년간의 정신간호학회지 게재된 논문들은 경험적 지식 형태, 추론적 초점, 대상자영역에 편중된 지식산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양한 현대 철학 사조를 기반으로 역동적인 생의 과정에 있는 인간의 총체성(holism)에 관심을 갖는 간호학 내의 정신간호학은 실증주의에 근거한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윤리적 지식과 미학적 지식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간호의 과학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잃지 않고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Flakerud J, Halloran EJ. Areas of agreement in nursing theory development. *Adv Nurs Sci*. 1980;3(1):1-7.
2. Kim HS. Structuring the nursing knowledge system: a typology of four domains. *Sch Inq Nurs Pract*. 1987;1:111-4.
3. Kim HS.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3rd ed. Lee WH, Kang KA, Kim DS, translator. Seoul: Hyunmoon Press; 2011. 337 p.
4. Lee EH, Lee MS, Koh MH, Kim JH, Jung MS. Developing nurs-

- ing knowledge: philosophical traditions and influences. Seoul: Daihaks Press; 2007. 277 p.
5. Carper BA. Fundamental pattern of knowing in nursing. *Adv Nurs Sci.* 1978;1(1):13-23.
<http://dx.doi.org/10.1097/00012272-197810000-00004>
 6. Dickoff J, James P. A theory of theories: a position paper. *Nurs Res.* 1968;17(3):197-203.
<http://dx.doi.org/10.1097/00006199-196805000-00004>
 7. Kim HS.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3r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0. 352 p.
 8. Kim HS. Research and knowledge development within the framework of nursing epistemology. In Hong KJ, editor. *Proceedi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ursing Science Research Institute Conference; 2002 July 12-13; Seoul, Korea.* Seoul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Nursing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02. 174 p.
 9. Chang SO. Analysis on articles published 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based on nursing knowledge classification. *J Korean Acad Nurs.* 2005;35(1):206-12.
 10. Sohng KY, Kim JI, Lim NY, Chang SO, Lee KE, Chaung SK, et al.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JKAFN) based on knowledge development classifications of nursing: 2006 Year of publication articles in JKAFN. *J Korean Acad Fundam Nurs.* 2007;14(2):150-6.
 11. Suh YO, Park JS, Yang JH, Kim HW, Suk MH, Shin HS, et al.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 Korean Acad Nurs.* 2007;37(6):1013-9.
 12. Jeong GH, Ahn YM, Cho DS. Coincidence analysis of key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with MeSH (2003-2005). *J Korean Acad Nurs.* 2005;35(7):1420-5.
 13. Shin HS, Hyun MS, Ku MO, Cho MO, Kim SY, Jeong JS, et al.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 Korean Acad Nurs.* 2010;40(1):139-49.
<http://dx.doi.org/10.4040/jkan.2010.40.1.139>
 14. Jeong IS, Jeong JS, Hwang JI, Choi JE. Assessment of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randomized and non-randomized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 Korean Data Analysis Soc.* 2012;14(1):173-84.
 15. Oermann MH, Shaw-Kokot J, Knaf J, Dowell J. Dissemination of research into clinical nursing literature. *J Clin Nurs.* 2010;19:3435-42.
<http://dx.doi.org/10.1111/j.1365-2702.2010.03427.x>
 16. Lee MH, Sohn JN, Won CS, Chung MA, Hyun MS, Han KS, et al. Trend of psychiatric nursing research by analysis of the published paper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on papers from 1992 to 2006.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7;16(3):295-307.
 17. Lee SJ, Lee MH. Analysis of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published b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7;16(4):377-88.
 18. Nam KA.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4;23(4):311-21.
<http://dx.doi.org/10.12934/jkpmhn.2014.23.4.311>
 19. Kim KH, Chang SO, Kang HS, Kim KS, Kim JI, Kim HS, et al. Trends in research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09-2011. *J Korean Acad Fundam Nurs.* 2012;19(3):383-91.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83>
 20. Choe MA, Kim NC, Kim KM, Kim SJ, Park KS, Byeon YS, et al. Trends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research trends for studies published from the inaugural issue to 2010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nd the Journals published by member societies under Kore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J Korean Acad Nurs.* 2014;44(5):484-94.
<http://dx.doi.org/10.4040/jkan.2014.44.5.484>
 21. Mantzoukas S. The research evidence published in high impact nursing journals between 2000 and 2006: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t J Nurs Stud.* 2009;46:479-89.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8.12.016>
 22. Yarcheski A, Mahon NE, Yarcheski TJ. A descriptive study of research published in scientific nursing journals from 1985 to 2010. *Int J Nurs Stud.* 2012;49(9):1112-21.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12.03.004>
 23. Yang S, Ha YS, Lee KS, Lee JS, Kwon HJ, Lee MH.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Seoul: Hyunmoon Press; 2010. 861 p.
 24. Ha YJ, Chae EH, Yang A. Study on human rights awarenes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mong mental health worke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3;7(1): 83-94.